#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재정정책

2020. 6.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 연 구 진 |**

연구책임: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 센터장
연 구 진: **김나리** 아태재정협력센터 선임연구원
**김윤옥** 아태재정협력센터 선임연구원
**허윤지** 아태재정협력센터 연구원

# 차례

Ⅰ. 서 론 ····· 1

Ⅱ. 연구의 대상과 방법 ····· 4
1. 연구 대상 ····· 4
2. 연구 방법 ····· 7

Ⅲ.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재정 동향 ····· 9
1. 코로나19 확산 추이 ····· 9
2. 경제 동향 ····· 11
3. 재정 동향 ····· 14

Ⅳ.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재정정책 ····· 18
1. 재정정책 및 규모 ····· 18
2. 재원조달 ····· 20
3. 세부대응정책 ····· 24
4. 국가별 정책 요약 ····· 29

Ⅴ. 주요국의 코로나19 재정정책 ····· 35
1. 베트남 ····· 35
2. 인도네시아 ····· 39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45

참고문헌 ····· 49

# 표목차

〈표 Ⅱ-1〉 PEMNA 회원국 기본 정보 ····· 5
〈표 Ⅱ-2〉 PEMNA 회원국 의료·보건 현황 ····· 6

〈표 Ⅲ-1〉 PEMNA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 10
〈표 Ⅲ-2〉 PEMNA 회원국 2020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 12
〈표 Ⅲ-3〉 PEMNA 회원국 2020년 실업률 및 피해 산업 부문 전망 ····· 13
〈표 Ⅲ-4〉 PEMNA 회원국 2020년 세입·세출 전망 ····· 16
〈표 Ⅲ-5〉 PEMNA 회원국 2020년 국가채무 전망 ····· 17

〈표 Ⅳ-1〉 PEMNA 일부 회원국 코로나19 회차별 경기부양책 ····· 18
〈표 Ⅳ-2〉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및 보건의료지출 ····· 19
〈표 Ⅳ-3〉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추경 및 국제원조 ····· 20
〈표 Ⅳ-4〉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추경 재원조달 방식 ····· 21
〈표 Ⅳ-5〉 PEMNA 회원국 추가 보건의료지출 재원조달 방식 ····· 22
〈표 Ⅳ-6〉 PEMNA 회원국 정부지출 관련 규제 완화 ····· 23
〈표 Ⅳ-7〉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조세정책 ····· 24
〈표 Ⅳ-8〉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가계 지원책 ····· 25
〈표 Ⅳ-9〉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가계 대상 현금 지급 정책 ····· 26
〈표 Ⅳ-10〉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기업 지원책 ····· 27
〈표 Ⅳ-11〉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책 ····· 28
〈표 Ⅳ-12〉 PEMNA 회원국별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 ····· 29
〈표 Ⅳ-13〉 PEMNA 회원국별 코로나19 관련 통화·거시 정책 ····· 32

# 그림목차

[그림 Ⅲ-1] PEMNA 일부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 10

# Ⅰ. 서 론

□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이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됨[1)]

○ 2020년 6월 1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14개 국가에서 8,061,55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440,290명에 달함[2)]

- 치사율은 5.45%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매우 높고 노인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말과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경증 호흡기 증상, 폐렴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 발현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의 발생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지역에 대한 의료지원과 환자의 치료 및 격리

○ 발생경로 확인 및 예방조치

○ 격리, 봉쇄, 학교 등교 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이 활용됨

□ 코로나19의 확산은 의료·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의 행태 변화와 정부의 전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이 발생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붕괴되면서 경제에 심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Novel Coronavirus(2019-nCoV) Situation Report-1, 2020. 1. 21."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121-sitrep-1-2019-ncov.pdf?sfvrsn=20a99c10_4(accessed June 18, 2020).

2)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COVID-19) Situation Report-149, 2020. 6. 17."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617-covid-19-sitrep-149.pdf?sfvrsn=3b3137b0_8(accessed June 18, 2020).

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이후 무역과 관광이 제한됨에 따라 주변 경제권에도 영향력이 확산됨[3)]

○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영향 또한 확대되고 있음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나, 그 범위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

○ 경제활동의 축소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며, 실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코로나19 이전에는 2020년 세계 경제가 3.3%[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세계 경제가 -3%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IMF, 2020.4).[5)]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전망치는 2020년 세계경제가 -4.9%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IMF, 2020.6.)[6)]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성장 전망은 2020년 4월보다 2020년 6월에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그룹은 코로나19 이전에는 2020년 경제가 1.6% 성장한다고 예측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8.0%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함

○ 신흥경제국 그룹은 코로나19 이전에는 2020년 경제가 4.4% 성장한다고 예측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3.0%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함

□ 아시아 국가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국가별 영향은 코로나 발생 규모, 의료 인프라, 보건정책, 산업 분포, 산업 구조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3) World Bank,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00: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2020.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0.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 본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와 재정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경제 피해의 최소화와 회복을 위해 각 국가가 시행 중인 재정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의 영향과 대응정책은 계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과 피해 산업의 파악 및 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한 자료를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PEMNA 소속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함

# Ⅱ.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연구 대상

□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s in Asia, PEMNA)에 속하는 14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함

○ 2020년 현재 PEMNA 회원국은 총 14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그리고 베트남이 포함됨

○ PEMNA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설립된 재정협력체이며, 재정제도, 재정정책, 재정개혁에 대한 회원국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재정관리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함[7)]

□ PEMNA의 14개 회원국은 인구, 경제 규모, 경제성장률이 다양하게 나타남[8)]

○ GDP 규모로는 2018년 기준 중국이 13.6조달러, 한국 1.6조달러, 인도네시아 1.0조달러의 순임

○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싱가포르가 64,582달러로 가장 높으며, 브루나이 31,628달러, 한국 31,363달러, 말레이시아 11,373달러 순임

○ PEMNA 회원국 14개 국가 중 10개 국가는 1인당 GDP가 1만달러 미만임.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얀마 1,326달러, 캄보디아 1,510달러, 동티모르 2,036달러 순임

○ 2018년 평균 GDP성장률은 캄보디아가 7.5%로 가장 높고, 몽골 7.2%, 베트남 7.1%의 순임

○ PEMNA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13억명이 넘는 중국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그다음을 이어 각각 2.6억명, 1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2020.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2020.

〈표 Ⅱ-1〉 PEMNA 회원국 기본 정보

(단위: 천명, 백만달러, 달러, %)

| 구분 | 인구 (천명) | GDP (백만달러) | 1인당 GDP (달러) | GDP 성장률 (%) | 소비자물가 (%) |
|---|---|---|---|---|---|
| 브루나이 | 429 | 13,567 | 31,628 | 0.1 | 1.0 |
| 캄보디아 | 16,250 | 24,542 | 1,510 | 7.5 | 2.5 |
| 중국 | 1,392,730 | 13,608,152 | 9,771 | 6.6 | 2.1 |
| 인도네시아 | 267,663 | 1,042,173 | 3,894 | 5.2 | 3.2 |
| 한국 | 51,635 | 1,619,424 | 31,363 | 2.7 | 1.5 |
| 라오스 | 7,062 | 17,954 | 2,543 | 6.2 | 2.0 |
| 말레이시아 | 31,529 | 358,582 | 11,373 | 4.7 | 0.9 |
| 몽골 | 3,170 | 13,067 | 4,122 | 7.2 | 6.8 |
| 미얀마 | 53,708 | 71,215 | 1,326 | 6.2 | 6.9 |
| 필리핀 | 106,652 | 330,910 | 3,103 | 6.2 | 5.2 |
| 싱가포르 | 5,639 | 364,157 | 64,582 | 3.1 | 0.4 |
| 태국 | 69,429 | 504,993 | 7,274 | 4.1 | 1.1 |
| 동티모르 | 1,268 | 2,581 | 2,036 | 2.8 | 2.6 |
| 베트남 | 95,540 | 245,214 | 2,567 | 7.1 | 3.5 |
| PEMNA | - | - | - | 5.0 | 2.8 |
| OECD | - | - | - | 1.7 | 1.9 |

주: 2018년 기준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2020, p. 2.

□ PEMNA의 14개 회원국은 국가별 의료·보건 현황 및 정책에서도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남[9)]

○ 국가별 국민 건강과 의료 인프라는 국가의 경제 발달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 기대수명은 싱가포르가 남성 81세, 여성 85세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이 남성 80세, 여성 86세, 브루나이와 중국이 남성 75세, 여성 78세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나라는 라오스로 남성 64세, 여성 67세로 나타났으며, 미얀마가 그다음으로 남성 65세, 여성 69세의 기대수명을 나타냄

○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라오스가 인구 1천명당 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얀마와 동티모르가 46명,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28명의 순으로 나타남

9) WHO, World Health Data Platform: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accessed June 12, 2020).

○ 인구 1만명당 병상 수에 있어서는 한국이 115.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몽골 70개, 동티모르 59개의 순으로 나타남

○ 1인당 보건지출은 싱가포르가 4,047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2,531달러, 브루나이 1,778달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의료·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한국이 GDP의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이 7.1%, 캄보디아 5.7%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2〉 PEMNA 회원국 의료·보건 현황

(단위: 달러, 세, 명, 개, 달러, % of GDP)

| 구분 | 1인당 GDP | 기대수명 | |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천명당 사망자 수) | 병상 수 (Hospital beds) (1만명당 병상 수) | 1인당 보건지출 (2014년 달러 기준) | 보건정책 지출비율 (% of GDP) |
|---|---|---|---|---|---|---|---|
| | | 남성 | 여성 | | | | |
| 브루나이 | 31,628 | 75 | 78 | 12 | 27.4 | 1,778 | 2.6 |
| 캄보디아 | 1,510 | 67 | 71 | 28 | 8.3 | 183 | 5.7 |
| 중국 | 9,771 | 75 | 78 | 9 | 42 | 731 | 5.5 |
| 인도네시아 | 3,894 | 67 | 71 | 25 | 12.1 | 299 | 2.9 |
| 한국 | 31,363 | 80 | 86 | 3 | 115.3 | 2,531 | 7.4 |
| 라오스 | 2,543 | 64 | 67 | 47 | 15 | 98 | 1.9 |
| 말레이시아 | 11,373 | 73 | 78 | 8 | 18.6 | 1,040 | 4.2 |
| 몽골 | 4,122 | 66 | 74 | 16 | 70 | 565 | 4.7 |
| 미얀마 | 1,326 | 65 | 69 | 46 | 9 | 103 | 2.3 |
| 필리핀 | 3,103 | 66 | 73 | 28 | 5 | 329 | 4.7 |
| 싱가포르 | 64,582 | 81 | 85 | 3 | 24 | 4,047 | 4.9 |
| 태국 | 7,274 | 72 | 79 | 8 | 21 | 219 | 4.1 |
| 동티모르 | 2,036 | 67 | 70 | 46 | 59 | 102 | 1.5 |
| 베트남 | 2,567 | 72 | 81 | 21 | 25.6 | 390 | 7.1 |

주: 2018년 기준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2020, p. 2, WHO, World Health Data Platform: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accessed June 12, 2020).

## 2. 연구 방법

□ 본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재정 영향과 정부의 대응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기구의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Crisis, 2020. 5. 7.

□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음[10)]

○ 다양한 국제기구가 코로나19 확산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구체적인 영향과 재정 분야 대응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PEMNA 회원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가별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를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

○ 설문지는 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와 재정의 영향, ②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의료정책과 재정정책, ③ 재정 분야 담당자의 역할, ④ 코로나19 대응의 이슈와 위기에 대한 질문 35개로 구성됨

○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됨

10) ADB, ADB COVID-19 Policy Database. https://covid19policy.adb.org/(accessed May 20, 2020)
IMF, Fiscal Monitor-April 2020-Chapter 1: Policies to Support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0/04/06/fiscal-monitor-april-2020(accessed May 12, 2020).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20/01/weodata/index.aspx(accessed May 19, 2020).
World Bank,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20: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2020.

□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과 몽골을 제외한 10개 국가가 설문조사에 답변함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

○ 국가별 예산 및 재정 분야 담당자가 답변을 직접 작성

○ 응답자료 수집 후 답변이 부족하거나 분석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응답자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수정 또는 확정함

# Ⅲ.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재정 동향

## 1. 코로나19 확산 추이

□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2019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PEMNA 회원국 중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모두 1월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PEMNA 회원국에서는 3월에 이르러 첫 확진자가 발생함

○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이 84,867명으로 가장 많으며, 싱가포르에서는 40,969명, 인도네시아에서는 40,4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

○ 6월 18일 기준, 누적 사망자 수는 중국이 4,6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아의 사망자 수도 2,231명에 다다름

○ 라오스와 동티모르의 확진자 수는 각각 19명, 24명이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음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태국, 동티모르는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없었으며, 베트남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임

〈표 Ⅲ-1〉 PEMNA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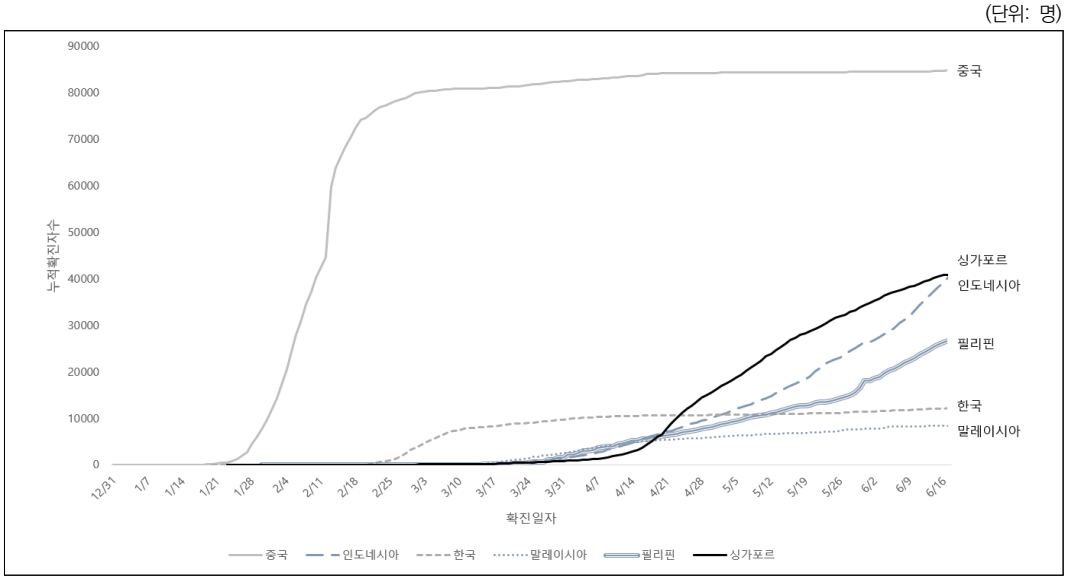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첫 확진자 발생일 | 신규 확진자 수 | 누적 확진자 수 | 신규 사망자 수 | 누적 사망자 수 |
|---|---|---|---|---|---|
| 브루나이 | 2020. 03. 09. | 0 | 141 | 0 | 1 |
| 캄보디아 | 2020. 01. 27. | 0 | 128 | 0 | 0 |
| 중국 | 2019. 12. 31. | 44 | 84,867 | 0 | 4,645 |
| 인도네시아 | 2020. 03. 02. | 1,106 | 40,400 | 33 | 2,231 |
| 한국 | 2020. 01. 20. | 43 | 12,198 | 1 | 279 |
| 라오스 | 2020. 03. 24. | 0 | 19 | 0 | 0 |
| 말레이시아 | 2020. 01. 24. | 11 | 8,505 | 0 | 121 |
| 몽골 | 2020. 03. 10. | 0 | 197 | 0 | 0 |
| 미얀마 | 2020. 03. 23. | 0 | 262 | 0 | 6 |
| 필리핀 | 2020. 01. 30. | 361 | 26,781 | 5 | 1,103 |
| 싱가포르 | 2020. 01. 23. | 151 | 40,969 | 0 | 26 |
| 태국 | 2020. 01. 13. | 0 | 3,135 | 0 | 58 |
| 동티모르 | 2020. 03. 21. | 0 | 24 | 0 | 0 |
| 베트남 | 2020. 01. 23. | 1 | 335 | 0 | 0 |

출처: WHO,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및 Coronavirus Disease Situation Reports를 대조하여 저자 작성. https://covid19.who.int/?gclid=EAIaIQobChMI5bjEkpnO6QIVTaSWCh1pyQE8EAAYASAAEgL5uvD_BwE(accessed June 18, 2020),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accessed June 25 2020).

[그림 Ⅲ-1] PEMNA 일부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단위: 명)




출처: WHO,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및 Coronavirus Disease Situation Reports를 대조하여 저자 작성. https://covid19.who.int/?gclid=EAIaIQobChMI5bjEkpnO6QIVTaSWCh1pyQE8EAAYASAAEgL5uvD_BwE(accessed June 18, 2020),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accessed June 25 2020).

## 2.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PEMNA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2019년 10월 기준으로 IMF가 예측했던 4.9%에서 2020년 4월과 6월[11] 기준 전망치는 -0.9%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됨

○ 평균 경제성장률은 IMF가 2019년 10월에 예측했던 2020년도 전망치인 4.9%에서 5.8%p 하락한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각국 정부가 예측한 경제성장률과 IMF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IMF가 경제성장률을 더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4월 기준 각국이 예측한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IMF 전망치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몽골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PEMNA 회원국 모두 2019년 10월 기준 전망치와 2020년 4월, 6월 기준 전망치와의 차이가 3%p 이상이 되어 상당히 큰 폭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 코로나19 여파로 PEMNA 회원국들의 2020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은 기존 2.9%에서 2.3%로 조정됨

○ 2020년 4월 기준 IMF가 전망한 2020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은 2.3%로 2019년 10월 기준 2020년 전망치인 2.9%에서 0.6%p 하락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 브루나이, 중국, 라오스는 물가가 예측치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외 PEMNA 회원국들은 물가가 예측치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브루나이 물가상승률은 0.2%에서 0.9%로 수정되었고, 중국은 2.4%에서 3.0% 그리고 라오스는 3.3%에서 6.5%로 수정됨

○ 물가상승률에 대한 수치는 각국 정부의 예측치와 IMF 예측치 간의 차이가 경제성장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1) IMF는 2020년 4월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6월에 새로 업데이트함. PEMNA 회원국은 6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대한 정보가 새로 업데이트되어 해당국들은 6월 기준 전망치를 사용함.

〈표 Ⅲ-2〉 PEMNA 회원국 2020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 구분 | 2020년 GDP 경제성장률 | | | | 2020년 물가상승률 | | | |
|---|---|---|---|---|---|---|---|---|
| | PEMNA 설문 | | IMF 전망 | | PEMNA 설문 | | IMF 전망 | |
|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이후 | 2019년 10월 기준 | 2020년 4, 6월 기준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이후 | 2019년 10월 기준 | 2020년 4월 기준 |
| 브루나이 | 4.9~7.1 | n/a | 4.7 | 1.3 | n/a | n/a | 0.2 | 0.9 |
| 캄보디아 | 6.5 | 3.5 | 6.8 | −1.6 | 2.9 | n/a | 2.5 | 1.5 |
| 중국 | n/a | n/a | 5.8 | 1.0* | n/a | n/a | 2.4 | 3.0 |
| 인도네시아 | 5.3 | 2.3 | 5.1 | −0.3* | 3.1 | 3.9 | 3.3 | 2.9 |
| 한국 | 2.2 | −1.2 | 2.2 | −2.1* | 1.1 | 0.3 | 0.9 | 0.3 |
| 라오스 | 6.5 | 3.3 | 6.5 | 0.7 | −5.0~5.0 | 6.1* | 3.3 | 6.5 |
| 말레이시아 | 4.8 | −2.0~0.5 | 4.4 | −3.8* | 2.0 | −1.5~0.5 | 2.1 | 0.1 |
| 몽골 | n/a | n/a | 5.4 | −1.0 | n/a | n/a | 8.3 | 5.6 |
| 미얀마 | 7.0 | 4.0~5.0 | 6.3 | 1.8 | 6.7 | 7.5 | 6.7 | 6.2 |
| 필리핀 | 6.5~7.5 | −3.4~−2.0 | 6.2 | −3.6* | 2.0~4.0 | 1.8~3.8 | 2.3 | 1.7 |
| 싱가포르 | −0.5~1.5 | −4.0~−1.0 | 1.0 | −3.5 | 0.5~1.5 | −1.0~0.0 | 1.0 | −0.2 |
| 태국 | 3.2 | −5.3 | 3.0 | −7.7* | 0.5~1.5 | −1.0 | 0.9 | −1.1 |
| 동티모르 | 5.1 | −3.0 | 5.0 | −3.0 | 2.7 | 2.4~2.7 | 3.2 | 0.9 |
| 베트남 | 6.8 | 5.0~5.3 | 6.5 | 2.7 | 〈4.0 | 〈4.0 | 3.8 | 3.2 |
| 평균 | - | - | 4.9 | −0.9 | - | - | 2.9 | 2.3 |

주: 1. *표로 표시된 IMF 전망 2020년도 GDP 경제성장률은 2020년 6월 25일자 수치임
2. 라오스의 물가상승률은 2020년 3월 기준 수치임.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및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accessed April 14, 2020)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20/01/weodata/index.aspx(accessed May 19, 20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6/24/WEOUpdateJune2020(accessed June 25, 2020)

□ **[실업률]**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PEMNA 회원국들의 2020년도 평균 실업률은 2019년 10월 기준 2020년 IMF 전망치인 4.4%에서 5.1%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각국 정부의 전망치보다 실업률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이 6.1%일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IMF는 7.5%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실업률이 4.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IMF는 2020년도 한국의 실업률을 4.5%까지 전망함

○ 실업률이 2019년 10월 기준 2020년 전망치보다 감소하는 국가도 있는데, 이는 몽골(기존 8.1%에서 수정 6.3%)과 태국(기존 1.2%에서 수정 1.1%)임

〈표 Ⅲ-3〉 PEMNA 회원국 2020년 실업률 및 피해 산업 부문 전망

(단위: %)

| 구분 | 실업률 | | | | 피해산업 부문 | | | | | | |
|---|---|---|---|---|---|---|---|---|---|---|---|
| | PEMNA 설문 | | IMF 전망 | | PEMNA 설문 | | | | | | |
|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이후 | 2019년 10월 기준 | 2020년 4월 기준 | 관광 | 교통 | 제조 | 도/소매 | 농업 | 무역 | 건설 |
| 브루나이 | n/a | n/a | 9.3 | 9.3 | ○ | ○ | | | | | |
| 캄보디아 | n/a | n/a | n/a | n/a | ○ | ○ | ○ | | | | |
| 중국 | n/a | n/a | 3.8 | 4.3 | | | | | | | |
| 인도네시아 | 4.8~5.0 | 5.9~6.1 | 5.0 | 7.5 | ○ | | ○ | | | ○ | |
| 한국 | 3.9 | 4.2 | 4.2 | 4.5 | ○ | ○ | | | | | |
| 라오스 | n/a | n/a | n/a | n/a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3.3 | 〈4.0 | 3.4 | 4.9 | ○ | | ○ | | ○ | | |
| 몽골 | n/a | n/a | 8.1 | 6.3 | | | | | | | |
| 미얀마 | 1.0 | n/a | 4.0 | 4.0 | ○ | | ○ | | | | |
| 필리핀 | n/a | n/a | 5.1 | 6.2 | ○ | ○ | ○ | | | | |
| 싱가포르 | n/a | n/a | 2.2 | 2.5 | ○ | ○ | | ○ | | | |
| 태국 | 1.1 | n/a | 1.2 | 1.1 | ○ | ○ | | ○ | | | |
| 동티모르 | n/a | n/a | n/a | n/a | | | | ○ | ○ | ○ | ○ |
| 베트남 | 〈4.0 | n/a | 2.2 | n/a | ○ | ○ | ○ | | | | |
| PEMNA 평균 | | | 4.4 | 5.1 | | | | | | |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및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accessed April 14, 2020)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20/01/weodata/index.aspx(accessed May 19, 2020)

□ **[피해 산업 부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PEMNA 회원국들의 산업 부문을 살펴보면, 봉쇄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산업 부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설문에 응답한 PEMNA 회원국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관광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답변을 함

○ 브루나이,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관광과 함께 교통산업 부문에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은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는 의류산업의 피해가 크고, 미얀마는 봉제산업과 중소기업이 이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꼽음

○ 라오스, 말레이시아, 동티모르는 농업의 피해도 크다고 답변함

## 3. 재정 동향

□ **[세입]**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둔화되어 전반적인 세입이 감소하고,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가계 및 기업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예산 세입 규모가 추가적으로 축소되면서 2020년도 세입은 기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2019년 10월 기준 2020년 세입 전망치 대비 2020년 4월 전망치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의 수정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동티모르 세입은 국내 세입 2억 1,050만달러와 석유기금수입 12억 3,600만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국내 세입은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긴급 정부지원금이 정부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보건 및 의료 분야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모든 PEMNA 회원국의 2020년도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IMF의 2019년 10월 기준 2020년 세출 전망치 대비 2020년 4월 전망치를 비교하면,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PEMNA 회원국의 수정 세출 전망치가 증가하였음

○ 싱가포르는 세출 규모가 2019년 기준 전망치인 14.8%에서 2020년 기준 전망치인 21.3%로 크게 수정됨

○ 동티모르는 2020년도 예산안을 16억 6,800만달러 규모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된 상태. 임시적으로 2019년 총예산을 기준으로 매달 2019년 정부예산의 12분의 1 규모를 집행하고 있으며, 약 1억 5천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정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 **[수지]** 코로나19로 인해 PEMNA 회원국들의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의 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PEMNA 회원국들의 평균 재정수지가 2019년 10월 기준 전망치인 -4.0%에서 2020년 4월 기준 전망치인 -7.9%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동티모르는 PEMNA 회원국들 중 가장 큰 재정적자 규모인 -27.5%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도에 예상했던 재정수지 전망치보다는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브루나이는 재정적자 전망치가 2019년 10월 기준 -11.3%에서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26.6%까지 증가하여 변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재정수지가 -11.2%이며, 브루나이, 중국, 동티모르를 제외한 PEMNA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함

○ 2019년 10월 기준 전망치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예상되었던 싱가포르마저 수정 전망치에서는 -3.5% 재정적자가 전망되는 상황임

○ 한국과 캄보디아가 각각 -1.8%와 -1.9% 재정적자가 전망되어 PEMNA 회원국 중에는 재정수지가 가장 양호함

〈표 Ⅲ-4〉 PEMNA 회원국 2020년 세입·세출 전망

(단위: PEMNA – 십억달러, IMF – GDP 대비 %)

| 구분 | 세입 | | | | 세출 | | | | 재정수지 | |
|---|---|---|---|---|---|---|---|---|---|---|
| | PEMNA 설문 | | IMF 전망 | | PEMNA 설문 | | IMF 전망 | | IMF 전망 | |
|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이후 | 2019년 10월 기준 | 2020년 4월 기준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이후 | 2019년 10월 기준 | 2020년 4월 기준 | 2019년 10월 기준 | 2020년 4월 기준 |
| 브루나이 | n/a | n/a | 24.1 | n/a | n/a | n/a | 35.5 | n/a | -11.3 | -26.6 |
| 캄보디아 | 6.5 | 4.2 | 23.0 | 23.2 | 8.2 | 7.3 | 24.7 | 25.0 | -1.7 | -1.9 |
| 중국 | n/a | n/a | 29.1 | 25.8 | n/a | n/a | 35.5 | 37.0 | -6.3 | -11.2 |
| 인도네시아 | 127.6 | 100.6 | 14.4 | 12.4 | 145.2 | 149.4 | 16.2 | 17.4 | -1.8 | -5.0 |
| 한국 | 393.1 | 393.5 | 22.6 | 22.9 | 418.0 | 433.4 | 23.4 | 24.8 | -0.8 | -1.8 |
| 라오스 | 3.2 | 2.3 | 15.9 | 14.0 | 4.0 | 3.6 | 20 | 20.3 | -4.1 | -6.2 |
| 말레이시아 | 56.3 | n/a | 18.0 | 19.3 | 55.5 | 63.3 | 20.6 | 23.5 | -2.6 | -4.2 |
| 몽골 | n/a | n/a | 30.2 | 27.2 | n/a | n/a | 31 | 32.4 | -0.9 | -5.3 |
| 미얀마 | 18.1 | n/a | 17.2 | 17.6 | 23.0 | n/a | 21.2 | 22.2 | -4.0 | -4.7 |
| 필리핀 | 68.9 | 51.9 | 20.6 | 19.7 | 82.2 | 82.2 | 22.3 | 23.1 | -1.7 | -3.4 |
| 싱가포르 | n/a | n/a | 18.6 | 17.8 | 74.4 | 93.9 | 14.8 | 21.3 | 3.8 | -3.5 |
| 태국 | n/a | n/a | 21.4 | 20.3 | 97.0 | 127.3 | 21.6 | 23.7 | -0.2 | -3.4 |
| 동티모르 | 0.2 | n/a | 25.9 | n/a | n/a | n/a | 57.3 | n/a | -31.4 | -27.5 |
| 베트남 | 65.3 | 60.0 | 23.3 | 18.1 | 75.5 | 80.0 | 27.6 | 23.3 | -4.3 | -5.2 |
| PEMNA 평균 | – | – | 21.7 | – | – | – | 26.2 | – | -4.0 | -7.9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IMF 데이터의 "기존" 수치는 2020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잠정치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및 IMF, Fiscal Monitor: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October 20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accessed April 14, 2020).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20/01/weodata/index.aspx(accessed May 19, 20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19/09/12/fiscal-monitor-october-2019,(accessed April 14, 2020).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1(accessed May 15, 2020).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FM(accessed May 15, 2020).

□ **[국가채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부양책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IMF에 의한 PEMNA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기존 전망치인 평균 46.8%에서 54.5%로 증가할 것으로 수정됨

○ 라오스, 말레이시아의 부채는 각각 56.2%에서 69.0%, 56.5%에서 63.0%로 크게 늘어날 전망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 정부는 국가채무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IMF는 이 중에서 캄보디아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IMF 국가채무 전망치는 오히려 기존 예측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국가채무 상승은 PEMNA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표 Ⅲ-5〉 PEMNA 회원국 2020년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 구분 | PEMNA 설문 | IMF 전망 | |
|---|---|---|---|
| | 국가채무 증가 전망 | 2019년 10월 기준 | 2020년 4월 기준 |
| 브루나이 | × | 2.7 | n/a |
| 캄보디아 | × | 30.1 | 31.3 |
| 중국 | n/a | 60.9 | 64.9 |
| 인도네시아 | ○ | 30.0 | 36.9 |
| 한국 | ○ | 43.4 | 46.2 |
| 라오스 | ○ | 56.2 | 69.0 |
| 말레이시아 | ○ | 56.5 | 63.0 |
| 몽골 | n/a | 83.7 | n/a |
| 미얀마 | ○ | 38.7 | 38.9 |
| 필리핀 | ○ | 39.3 | 42.9 |
| 싱가포르 | × | 114.6 | 113.0 |
| 태국 | ○ | 43.0 | 48.1 |
| 동티모르 | ○ | 6.1 | n/a |
| 베트남 | × | 53.3 | 45.7 |
| PEMNA 평균 | - | 46.8 | 54.5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IMF 데이터의 "기존" 수치는 2020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잠정치임. 몽골은 2017년, 동티모르는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함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및 IMF, Fiscal Monitor: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October 20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accessed April 14, 2020).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20/01/weodata/index.aspx(accessed May 19, 20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19/09/12/fiscal-monitor-october-2019(accessed April 14, 2020).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1(accessed May 15, 2020).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FM(accessed May 15, 2020).

# Ⅳ.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및 규모

□ **[경기부양책 및 보건의료지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PEMNA 14개국 모두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고, 10개국은 보건의료지출을 추가 배정함

○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은 2월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번에 걸쳐 발표되었고, 총규모는 평균적으로 1,268억달러이며, 국가별 규모는 최소 300만달러(라오스)에서 최대 1조 3,565억달러(중국) 사이 분포함

- PEMNA 예산분과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기부양책 발표국은 2월에는 3개국에서 3월에는 6개국, 4월에는 9개국으로 점차 확대됨
- ADB 데이터에 의하면, PEMNA 14개국의 경기부양책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7.8% 수준임

○ 10개국에서 추가 배정한 보건의료지출 규모는 평균적으로 454억달러이며, 국가별 규모는 최소 7,500만달러(동티모르)에서 최대 3,800억달러(중국) 사이 분포함

〈표 Ⅳ-1〉 PEMNA 일부 회원국 코로나19 회차별 경기부양책

| 국가 | 회차별 일시 및 규모 | | |
|---|---|---|---|
| 말레이시아 | ① 2/27: 48억달러 | ② 3/27: 548억달러 | ③ 4/6: 24억달러 |
| 미얀마* | ① 3/18: 7천만달러 | ② 4/9: 17억 7천만달러 | - |
| 싱가포르 | ① 2/18: 45억달러 | ② 3/26: 342억달러 | ③ 4/6: 35억달러 |
| 태국 | ① 3/10: 45억달러 | ② 3/24: 35억달러 | ③ 4/7: 576억달러 |
| 베트남 | ① 4/3: 110억달러 | ② 4/8: 80억달러 | ③ 4/9: 30억달러 |

주: 1. PEMNA 예산분과 설문조사 중 개별 경기부양책의 세부 규모를 제공한 경우만 정리함
2. 미얀마(*)는 일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만 세부 규모를 제공함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표 Ⅳ-2〉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및 보건의료지출

| 구분 |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 | | | | 추가 보건의료지출 | | |
|---|---|---|---|---|---|---|---|
| | PEMNA 설문 | | ADB 집계 | | PEMNA 설문 | IMF 집계 | |
| | 일시 | 백만달러 | 백만달러 | GDP 대비 % | 백만달러 | 백만달러 | GDP 대비 % |
| 브루나이 | 4/1 | 317 | 318 | 2.7 | 0 | n/a | n/a |
| 캄보디아 | n/a | 664 | 2,070 | 7.8 | 60 | 60* | 0.2* |
| 중국 | n/a | n/a | 1,356,528 | 10.0 | n/a | 380,000 | 2.5 |
| 인도네시아 | 2,3,4월 | 24,920 | 57,970 | 5.5 | 4,290 | 18,000 | 1.8 |
| 한국 | 3/19, 24, 30, 4/8 | 122,400 | 119,244 | 7.6 | 1,700 | 24,000 | 1.5 |
| 라오스 | 4/2 | 322.2 | 3 | 0.0 | 0 | n/a | n/a |
| 말레이시아 | 2/27, 3/27, 4/6 | 62,000 | 32,516 | 9.2 | 273 | n/a | n/a |
| 몽골 | n/a | n/a | 1,974 | 14.7 | n/a | n/a | n/a |
| 미얀마 | 3/12, 18, 24, 4/6, 8, 9, 27 | 1,841 | 99 | 0.1 | 0 | n/a | n/a |
| 필리핀 | 4/23 | 6,900 | 16,679 | 4.5 | 957 | n/a | n/a |
| 싱가포르 | 2/18, 3/26, 4/6 | 42,180 | 45,058 | 12.8 | 560 | 25,000 | 7.0 |
| 태국 | 3/10, 24, 4/7 | 65,665 | 82,535 | 15.7 | 1,515 | n/a | n/a |
| 동티모르 | 4월 | n/a | 250 | 8.5 | 75 | n/a | n/a |
| 베트남 | 4/3, 8, 9 | 22,000 | 26,180 | 10.0 | 700 | 4,200 | 1.2 |

주: 1.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2. IMF의 추가 보건의료지출 자료는 캄보디아만 Policy Tracker를 참고하였고, 그 외 국가는 Fiscal Monitor를 참고함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ADB, ADB COVID-19 Policy Database, IMF, Fiscal Monitor-April 2020-Chapter 1: Policies to Support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p. 30~40 및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covid19policy.adb.org/(accessed May 20, 2020).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 2. 재원조달

□ **[추경 및 국제원조]** PEMNA 회원국 중 10개국이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시행하였고, 12개국이 국제원조를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재원을 조달함

○ 추경을 실시한 10개국 중 한국이 1,574억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동티모르가 250만달러로 최소 규모임

- 브루나이는 현재 부처 예산요구 취합 중으로 추후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며, 필리핀 역시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지 않음
- 동티모르의 추경 규모는 250만달러이나 이 중 100만달러는 정부사업 운영비로 사용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150만달러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PEMNA 회원국이 코로나19 관련 국제원조를 받고 있으며, 원조 규모는 최대 23억달러(필리핀)에서 최소 100만달러(동티모르)임

〈표 Ⅳ-3〉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추경 및 국제원조

(단위: 백만달러)

| 구분 | 코로나19 추경 | | 국제원조 | |
|---|---|---|---|---|
| | PEMNA 설문 | | PEMNA 설문 | ADB 집계 |
| | 추경 여부 | 총규모 | 수령 여부 | 총규모 |
| 브루나이 | ○ | n/a | ○ | n/a |
| 캄보디아 | ○ | 410 | ○ | 37 |
| 중국 | n/a | n/a | n/a | 43 |
| 인도네시아 | ○ | 24,920 | ○ | 1,503 |
| 한국 | ○ | 157,400 | × | n/a |
| 라오스 | ○ | 330 | ○ | 21 |
| 말레이시아 | ○ | 8,300 | × | 6 |
| 몽골 | n/a | n/a | n/a | 59 |
| 미얀마 | × | 0 | ○ | 5 |
| 필리핀 | ○ | n/a | ○ | 2,310 |
| 싱가포르 | ○ | 19,580 | × | n/a |
| 태국 | × | 0 | × | 2 |
| 동티모르 | × | 250 | ○ | 1 |
| 베트남 | × | 2,300 | ○ | n/a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및 ADB, ADB COVID-19 Policy Database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covid19policy.adb.org/(accessed May 20, 2020).

□ **[추경 재원조달 방식]** PEMNA 회원국은 다수의 코로나19 추경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중이며 특히 자본지출 삭감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자본지출 삭감(6개국), 정부차입(5개국), 국채발행(4개국), 국제원조(4개국)를 활용 중임

○ 이 외에도 예비비(브루나이, 싱가포르), 지방정부 이전지출(인도네시아), 석유기금(동티모르) 등을 활용 중임

〈표 Ⅳ-4〉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추경 재원조달 방식

| 구분 | 자본지출 삭감 | 정부차입 | 국채발행 | 국제원조 | 추경 없음 | 기타 |
|---|---|---|---|---|---|---|
| 브루나이 | | | | | | 예비비 등 |
| 캄보디아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지방정부 이전지출 삭감 |
| 한국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미얀마 | ○ | ○ | | ○ | | |
| 필리핀 | | | | | | 현재 추경안 의회 심의 단계 |
| 싱가포르 | ○ | | | | | 예비비 등 |
| 태국 | | | | | ○ | |
| 동티모르 | | | | | | 석유기금에서 인출(250백만달러) |
| 베트남 | | ○ | ○ | ○ | |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 **[보건의료지출 재원조달 방식]** PEMNA 회원국은 추가적인 보건의료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다수의 방식을 활용 중이며, 특히 2020년 보건예산 활용과 2020년 예산 재조정을 가장 많이 활용함

○ 회원국은 2020년 보건예산(10개국), 2020년 예산 재조정(10개국),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2020년 예비비(9개국), 국제원조(7개국)로 재원조달 중임

○ 이 외에도 추경(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자발적 기부(브루나이, 캄보디아) 및 급여 삭감(캄보디아), 2019년 재정흑자분(동티모르, 베트남) 등을 활용 중임

〈표 Ⅳ-5〉 PEMNA 회원국 추가 보건의료지출 재원조달 방식

| 구분 | 2020년 보건예산 | 2020년 예산 재조정 | 2020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포함) | 국제원조 | 기타 |
|---|---|---|---|---|---|
| 브루나이 | ○ | | | ○ | 추경 및 재난관리예산, 코로나19 구호기금(공공/민간 기부) |
| 캄보디아 | ○ | ○ | ○ | ○ | 추경, 국민 기부금, 공무원의 자발적 급여 삭감 |
| 인도네시아 | ○ | ○ | ○ | | 국제기구 융자 |
| 한국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추경 |
| 말레이시아 | ○ | ○ | ○ | | |
| 미얀마 | ○ | ○ | ○ | ○ | |
| 필리핀 |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추경, 과거 예비비 |
| 태국 | ○ | ○ | ○ | ○ | |
| 동티모르 | | | | ○ | 2019년 재정흑자분 |
| 베트남 | | ○ | ○ | | 2019년 재정흑자분, 각 지자체 임금 개혁에 의한 수입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5.7.

□ **[정부지출 규제 완화]** PEMNA 회원국 중 9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정부지출 관련 규제를 완화 중이며 특히 부처지출 제한과 재화 및 서비스 조달 규정 완화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규제 완화의 대상은 부처지출 제한(7개국), 재화 및 서비스 조달 규정(7개국), 정부차입(4개국), 부처지출 보고(4개국)임

○ 이 외에도 2020년 예산 삭감 및 재조정(캄보디아), 의무지출 규정 완화(인도네시아) 등도 시행 중임

〈표 Ⅳ-6〉 PEMNA 회원국 정부지출 관련 규제 완화

| 구분 | 부처지출 제한 완화 | 재화 및 서비스 조달 규정 완화 | 정부차입 제한 완화 | 부처지출 보고 완화 | 기타 | 없음 |
|---|---|---|---|---|---|---|
| 브루나이 | | | | | | ○ |
| 캄보디아 | ○ | | | ○ | 2020년 예산 삭감 및 재조정 | |
| 인도네시아 | ○ | ○ | ○ | ○ | 의무지출 규정 완화<br>(보건지출, 마을기금 등) | |
| 한국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미얀마 | ○ | ○ | | | | |
| 필리핀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태국 | | ○ | ○ | | | |
| 동티모르 | | | | | | ○ |
| 베트남 | ○ | | | | |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 3. 세부대응정책

□ **[조세정책]** PEMNA 회원국 중 11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조세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세이연(tax deferment)이 가장 많이 활용됨

○ 코로나19 조세정책으로 과세이연(10개국), 조세면제(9개국), 조세감면(9개국), 조세환급(5개국)이 시행 중임

○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는 지불유예(moratorium) 관련 금융기관 특별세를 시행 중임

〈표 Ⅳ-7〉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조세정책

| 구분 | 과세이연 | 조세면제 | 조세감면 | 조세환급 | 기타 |
|---|---|---|---|---|---|
| 브루나이 | | | ○ | | |
| 캄보디아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마스크 수출 금지,<br>지불유예(moratorium) 관련 금융기관 특별세 |
| 미얀마 | ○ | ○ | ○ | | |
| 필리핀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 태국 | ○ | ○ | ○ | | |
| 동티모르 | | | | | 논의 중 |
| 베트남 | ○ | ○ | ○ | ○ |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 **[가계 지원책]** PEMNA 예산분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12개 회원국은 코로나19 관련 가계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대출제도 개편 정책이 가장 많음

○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비롯한 대출제도 개편(9개국), 대출상환 일시 연기(8개국), 유동성 제약 완화와 장기저리대출 도입(5개국), 담보와 상한선 등 은행대출 관련 규제 완화(2개국)가 시행 중임

○ 이 외에도 조건부 현금이전 및 조기고용프로그램(캄보디아), 재난지원금(한국), 이자 및 수수료 면제·감액(동티모르) 등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음

〈표 Ⅳ-8〉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가계 지원책

| 구분 | 대출제도 개편 (이자율, 대출기간 등) | 대출상환 연기 | 유동성 제약 완화 및 장기저리대출 | 은행대출 규제 완화 (담보, 상한선 등) | 기타 |
|---|---|---|---|---|---|
| 브루나이 | ○ | ○ | | | |
| 캄보디아 | | | | | 민간은행의 자발적 대출상환 연기 |
| 인도네시아 | ○ | ○ | ○ | ○ | 조건부 현금이전, 조기고용 프로그램 |
| 한국 | | | | | 재난지원금 |
| 라오스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미얀마 | ○ | | | | |
| 필리핀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태국 | ○ | ○ | ○ | | |
| 동티모르 | | | | | 현재까지 관련 지원 없음 |
| 베트남 | ○ | ○ | | | 이자 및 수수료 면제·감액, 부채규모 유지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 **[가계 현금 지급]** PEMNA 회원국 중 10개국이 코로나19 시기 가계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지급 방식은 개인 은행 계좌로의 입금이 가장 많이 활용됨

○ 현금 지급 정책이 일회성인 국가가 4개국, 다회성인 국가가 1개국이며, 5개국은 일회성 및 다회성 지급을 혼용하여 시행 중임

○ 지급 방식으로는 개인 은행 계좌로의 입금(8개국), 지자체에서 현금 지급(4개국), 지역선불카드 또는 바우처 지급(1개국)이 활용됨

○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는 전자지갑 형식으로 가계에 현금을 지급함

〈표 Ⅳ-9〉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가계 대상 현금 지급 정책

| 구분 | 시행 방식 | | | 지급 방식 | | | | |
|---|---|---|---|---|---|---|---|---|
| | 없음 | 일회성 | 다회성 | 개인 은행 계좌 입금 | 지자체에서 현금 지급 | 지역선불카드/ 바우처 지급 | 사후 환급 | 기타 |
| 브루나이 | ○ | | | | | | | |
| 캄보디아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전자지갑 |
| 미얀마 | ○ | | | | | | | |
| 필리핀 | | ○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 동티모르 | |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 |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 **[기업 지원책]** PEMNA 예산분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12개 회원국은 코로나19 관련 가계 지원책을 시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며 대출제도 개편 정책이 가장 많음

○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비롯한 대출제도 개편(10개국), 대출상환 일시 연기(9개국), 유동성 제약 완화와 장기저리대출 도입(8개국), 담보와 상한선 등 은행대출 관련 규제 완화(4개국)가 시행 중임

○ 이 외에도 법인세 인하(브루나이), 중소기업 대상 저리대출(캄보디아), 이자 및 수수료 면제·감액(동티모르) 등의 지원책이 시행 중임

〈표 Ⅳ-10〉 PEMNA 회원국 코로나19 기업 지원책

| 구분 | 대출제도 개편 (이자율, 대출기간 등) | 대출상환 연기 | 유동성 제약 완화 및 장기저리대출 | 은행대출 규제 완화 (담보, 상한선 등) | 기타 |
|---|---|---|---|---|---|
| 브루나이 | ○ | ○ | | | 법인세 인하 |
| 캄보디아 | | | | ○ |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100만달러)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미얀마 | ○ | | | | |
| 필리핀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
| 태국 | ○ | ○ | ○ | | |
| 동티모르 | | | | | 논의 중 |
| 베트남 | ○ | ○ | ○ | | 이자 및 수수료 면제·감액, 부채규모 유지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 **[중소기업 지원책]** PEMNA 예산분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12개 회원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장기저리대출이 가장 많이 시행됨

○ 장기저리대출(9개국), 임금 보조(8개국),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6개국), 시장 개발 및 혁신 지원(3개국), 현금 지급(2개국)이 시행 중임

○ 이 외에도 신탁기금 및 연금 유예(브루나이), 임차료 면제(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조세 면세 또는 감면(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지원책이 시행 중임

〈표 Ⅳ-11〉 PEMNA 회원국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책

| 구분 | 장기저리대출 | 임금 보조 |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시장 개발 및 혁신 지원 | 현금 지급 | 기타 |
|---|---|---|---|---|---|---|
| 브루나이 | | ○ | ○ | | | 월별 근로자 신탁기금 및 보충분담 연금 유예, 특정 소상공인 공공건물 임차료와 수도 및 전기요금 할인, 개인위생 관련 관세 임시 면제, 지역 농산물 구매 캠페인 |
| 캄보디아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조세 면제 및 감면, 행정 규제 완화, 신용 관련 지원 |
| 한국 | ○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 미얀마 | ○ | | | | | |
| 필리핀 | ○ | ○ | | | | 소상공인의 상업 목적 임차료 30일 유예 |
| 싱가포르 | ○ | ○ | ○ | | ○ | 임차료 면제 |
| 태국 | ○ | | | | | |
| 동티모르 | | ○ | | | | |
| 베트남 | ○ | | ○ | |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주: PEMNA 14개 회원국 중 중국, 몽골은 설문조사 무응답임

출처: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2020. 5. 7.

## 4. 국가별 정책 요약

□ **[재정정책 현안]** PEMNA 회원국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 모든 PEMNA 회원국에서 보건 및 의료 분야 지출을 확대하였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업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 업종을 파악하여 정부지원을 마련하고, 대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정책을 확대하였고, 직원의 연금 또는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해당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도입함

○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도모함

○ 또한 전기 및 수도 요금을 인하하여(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입품에 대한 면세조치 그리고 식량(쌀)을 확보하는 등 기본 생활필수품 공급 관리에 신경쓰고 있음

○ PEMNA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은 〈표 Ⅳ-12〉로 정리할 수 있음

〈표 Ⅳ-12〉 PEMNA 회원국별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

| 구분 | 정책 내용 |
|---|---|
| 브루나이 | • 조세감면, 사회보장 확대<br>• 관광, 숙박, 교통 그리고 식당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노후연금(Employees Trust Fund, TAP)과 보충분담연금(Supplementary Contributory Pension, SCP) 분담금 지급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
| 캄보디아 | • 보건 분야에 추가적으로 약 6천만달러(GDP 대비 0.2%) 투입<br>• 조세감면, 지출보조, 신용지원, 임시 실업급여 지원<br>• 가계를 위한 지원금, 임금 보조금, 건강 및 고용 보험 보조금 등의 사회 안정화 지원 강화<br>• 중소기업과 쌀 생산자를 위한 지원책과 더불어 농촌개발은행 등의 특수은행을 통한 저리대출 확대 |
| 중국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관리 재원 확대, 코로나19 관련 수입품에 대해 면세조치<br>• 특별 지방정부채권 발행 한도를 GDP 대비 1.3% 확대<br>• 국가공공의료응급관리시스템 향상과 자동안정화 시스템을 위한 지원 확대<br>• 중소기업 유동성 제한 규제 완화<br>• 후베이성 납세자는 부가세 면제, 기타 지역은 1~3% 감면<br>• 실업급여 지급, 조세감면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또는 지급 연장 |

| 구분 | 정책 내용 |
|---|---|
| 인도네시아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재원 확대<br>• 식사지원, 조건부 현금지원, 전기요금 보조금 등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br>• 비공식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실업급여 확대<br>• 소득기준에 따라 개인 및 관광업 종사자에게 조세감면<br>• 2020~21년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고, 2022년도부터는 20%로 인하<br>• 민간 분야를 위한 신용대출 지원을 포함한 국가경제발전사업 지원 확대 |
| 한국 | • 보건 분야 지원, 격리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긴급가족돌봄 지원, 지역상품권 활성화, 임대료 지원, 기업용 대출 확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관광·숙박·의료 등의 피해 업종 지원,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기한 연장, 조세감면 등 진행<br>• 질병 확산 방지 및 치료<br>• 피해 기업 대출 확대, 피해 가구 지원, 피해 지역 경제 지원 관련 지출 확대<br>• 가구를 위한 지원금 및 실업급여 확대<br>• 피해 기업을 위한 조세·관세·보조금 지원<br>•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br>•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br>• 관광·통신·영화 산업을 위한 지원<br>• 공공투자 및 공공구매 관련 선지급 확대, 민간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br>• 개강 연기로 인한 보육 관련 지원 확대 |
| 라오스 | •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관광업종 납세기한 연장, 정부 일반관리비 예산삭감 등 진행<br>• 질병 확산 방지 및 치료 지출 확대<br>•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민기금 모금(5월 6일 기준, 현금 155억킵과 520억킵 상당의 현물이 모금됨)<br>• 전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2020~25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도입<br>• 세입확보를 위해 세입징수 자동화 플랫폼 강화<br>• 공무원과 월소득 500만킵 이하인 근로자를 위해 3개월간 소득세 면제, 연매출 5천만~4억킵 사이의 소상기업을 위해 3개월간 수익세 면제, 코로나19 관련 수입품에 대해 면세조치, 관광 관련업 세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의무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19년도 회계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연장, 도로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br>•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위해 50만킵 지원금 지급<br>• 정부행정지출 10% 삭감 |
| 말레이시아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임시 조세감면, 저소득층과 피해 업종 현금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감면<br>• 투자지출 선지급, 급여보조금 지급, 기업대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br>• 근로자 공제기금(Employment Provident Fund, EPF) 납부기한 연장 및 기금 임시활용 허가<br>• 외국인 근로자 관련 비용(Foreign Workers' Fee) 감면 |
| 몽골 | • 질병 확산 방지 및 관리, 의료장비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 분야 지출 확대(GDP 대비 0.04%)<br>• 특정 식품 및 의료제품 수입에 대한 면세조치, 아동수당 및 실업급여 확대, 법인세, 개인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장 관련 분담금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대출 확대, 캐시미어 생산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확대<br>• 아동지원금 확대, 푸드스탬프 지원금 확대, 고령자·장애인·고아 및 4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사회보장연금 확대<br>• 정부지출 삭감 |

| 구분 | 정책 내용 |
|---|---|
| 미얀마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조세감면 및 납세기한 연장, 수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br>• 미얀마경제은행을 통한 저리 기업대출 확대(중소기업 및 관광업 집중지원)<br>•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및 전기요금 지원<br>• 관광 및 숙박업의 영업자격 연장비용 2021년 3월까지 면제<br>• 미얀마자동화물통관시스템(Myanmar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을 거치는 기업의 관세 감면<br>•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및 제품에 대해 면세조치<br>•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영업이 중지된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지원금 확대 |
| 필리핀 | • 의료진을 위한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관광업 및 농업 지원 확대<br>• 저소득 가구에 월 5천~9천페소를 2개월간 지급하는 현금보조 프로그램 실시, 국내 및 재외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 확대<br>• 중소기업 및 가구를 위한 대출 확대 |
| 싱가포르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급여보조금 지급, 피해 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출 확대<br>• 전 국민을 위한 현금지급,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위한 지원 확대 |
| 태국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피해 사업자·농부·근로자 지원<br>•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 확대, 조세감면<br>•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감면,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
| 동티모르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3개월간 가구당 월 100달러 현금지급<br>•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급여보조금 지급<br>• 3개월 분량의 긴급 쌀 공급량 확보<br>• 필수품 및 의료·긴품 물품 유통채널 유지<br>• 3개월간 저소득 가구 전기요금(월 15달러 한도), 수도요금, 정부 소유 건물 임대료,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면제<br>• 해외에서 유학 중인 국민들을 위해 장학금 지급<br>• 납세기한 2개월 연장 |
| 베트남 | • 보건 분야 지출 확대<br>• 부가세·개인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납세기한 연장, 가솔린에 대한 환경세 감면 및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br>• 국내생산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사업자등록비 인하, 관세 인하<br>•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행료 등 요금 인하,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br>• 공공투자 지출 가속화<br>• 사회보장지원금(실업급여, 저소득층 보조금, 무급휴가근로자 지원금 등) 확대 및 해당 수혜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현금보조금 지원, 연금기금 분담금 지급기한 연장 |

출처: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20*, pp. 32~35,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 **[통화·거시 정책 현안]** PEMNA 회원국들의 정부는 재정부양책 외에도 다양한 통화·거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모든 PEMNA 회원국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보증 등을 통해 기업의 대출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등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도 경감함

○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함

○ 국채를 활용하여 자금조달 방안을 확보하고,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함

○ PEMNA 회원국들의 통화·거시 정책은 〈표 Ⅳ-13〉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Ⅳ-13〉 PEMNA 회원국별 코로나19 관련 통화·거시 정책

| 구분 | 정책 내용 |
|---|---|
| 브루나이 | • 코로나19 피해업종(관광·행사관리·식당·항공), 식품 및 의료장비 수입업자를 위한 대출이자 상환기한 연장 및 은행수수료 면제<br>•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온라인뱅킹 관련 수수료 6개월간 면제<br>• 개인대출 구조조정 및 대출이자 상환기한 연장 |
| 캄보디아 | •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의 의무적립비율 추가 확대 지연, 담보증권 금리 인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인하, 중앙은행의 외화 및 현지화 지급준비율 인하<br>• 관광·의류·건설·교통·유통업의 대출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br>• 변동환율제 유지<br>• 국내 식량 공급 확보를 위해 쌀 수출 금지 |
| 중국 | •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역환매조건부채권 및 중기유동성지원창구)<br>• 의료물품 생산자, 중소기업, 농업 분야에 대한 저리 재대출 및 재할인율 인하 확대<br>• 초과준비금 금리 인하, 상업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중소기업 대출 확대<br>•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및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br>• 중소기업 및 가구 대출 상환기한 연장<br>•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해 유예<br>•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신용보증 지원<br>• 환율은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허가 |
| 인도네시아 | • 지급준비율 인하, 리파이낸싱 규모 확대<br>•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역RP 매입기한 12개월까지 연장, 일일 RP 경매 도입, 환율스와프 경매 횟수 증가<br>• 채권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br>•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허가, 기업의 주식환매 허가 정책 및 주가 하락 한도 도입<br>• 은행의 대출 분류 및 구조조정 과정 완화, 회계보고서 제출기한 연장<br>• 시장안정화를 위해 현물시장, 국내비인도선물환시장(Domestic Non- Deliverable Forwards), |

| 구분 | 정책 내용 |
|---|---|
| | 국내채권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br>• 글로벌 및 국내 수탁은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거래 허용<br>• 수출입 제한 정책 폐지 |
| 한국 | • 기준금리 인하<br>•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br>•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확충<br>•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국고채 매입,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 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 제도 도입<br>•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br>•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br>•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br>•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br>•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br>• 수출산업 자금조달 지원 |
| 라오스 | • 외화 및 현지화 지급준비율 인하<br>• 은행 대출 구조조정 및 대출 확대<br>• 대출 금리 인하<br>• 관리변동환율제도 유지 |
| 말레이시아 | • 기준금리로 쓰이는 1일물 정책금리(Overnight Policy Rate, OPR) 인하<br>• 지급준비율 인하 및 말레이시아 정부주식(Malaysia Government Securities)과 정부국채(Malaysia Government Investment Issue)를 지급준비율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br>• 자금조달 확대<br>• 대출 관련 은행 감독 규제 및 보험 관련 규제 임시 완화 및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br>• 6월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의 공매도 금지 |
| 몽골 | • 정책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br>• 대출 및 건전성 관련 은행 규제 임시 완화<br>•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한 연장 |
| 미얀마 | • 정책금리 인하 및 9월 30일까지 지급준비율 임시 인하<br>•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경매 중지<br>• 만기 1년 이상 국채 발행률 확대<br>• 건전성 관련 규제 임시 완화<br>•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되, 과도한 환율변동 시 개입 |
| 필리핀 | • 정책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br>•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정부에 자금 지원<br>• 은행업에 대한 규제 임시 완화(감사보고 등에 대한 기준 완화, 재할인 확대, 상대손충당준비금에 대한 기준 임시 완화, 유가증권 일일정산 관련 건전성 규제 완화)<br>•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상환기한 연장, 대출 보증 확대 |
| 싱가포르 | • 개인 및 중소기업 현금유동성 완화를 위해 대출 및 보험 조건 완화<br>• 600억달러 규모 싱가포르-미국 통화스와프 체결<br>•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싱가포르 달러의 정책밴드(Policy Band) 기울기를 0으로 조정, 정책밴드의 중간값은 내리고 폭은 종전 수준을 유지<br>• 금융기관에 대한 일부 감독규제 완화 |

| 구분 | 정책 내용 |
|---|---|
| | •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금 지원(직원 교육 및 인건비 지원, 디지털화 및 조직탄력성 강화, 핀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 강화) |
| 태국 | • 정책금리 및 금융기관 분담금 인하<br>•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장기저리대출 확대(정부가 중소기업의 6개월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의 60~70%를 보증함)<br>• 중소기업 대출 상환기한 연장 및 정부 소유의 특수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br>• 회사채안정화펀드(Corporate Bond Stabilization Fund) 조성<br>•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축소 또는 취소<br>• 뮤추얼펀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별창구 설치<br>• 중앙은행을 통해 외환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은 외부쇼크에 맞춰 변동하게 함 |
| 동티모르 | • 금리 인하, 필수품 수입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응급대출 확대<br>•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시스템 확대 |
| 베트남 | • 정책금리·단기예금금리·단기대출금리 인하<br>• 현지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지준부리율)과 베트남 예금보험, 베트남 사회정책은행, 베트남 개발은행, 인민보증펀드 그리고 소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율 인상<br>• 가구 및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대출 상환기한 연장, 대출이자 감면, 각종 은행 수수료 감면<br>• 피해 기업의 임시 휴직 중인 직원 월급 지급을 위한 자금을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을 통해 무이자대출, 소득 가구 대출 이자율 인하<br>• 금융기관의 성과급, 급여 그리고 운영비용을 삭감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이자율을 인하, 실대출금 관리를 위해 유동성 확보<br>• 과도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시장 정부 개입 |

출처: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20*, pp. 32~35,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 V. 주요국의 코로나19 재정정책

## 1. 베트남

### 가. 코로나19 현황 및 영향[12)]

□ **[코로나19 현황]** 2020년 6월 18일 기준, 확진자 335명[13)]인 베트남은 빠른 초기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베트남의 확진자 수는 3월초까지 16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는 비교적 더딘 수준이었으나 이후 해외 유입에 의한 확진자 수 및 전파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무총리 지침(Directive No. 16/CT-TTg)에 의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한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 입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이동을 통제
- 국민들의 위생 관념을 향상시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 학생 및 교사 간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를 봉쇄
- 고위험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
- 의료용품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확산 방지와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식료품 및 생필품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밀접하고 지속적인 감독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

---

12) Ministry of Finance of Vietnam,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mpact of COVID-19 in Vietnam,"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베트남 발표자료, 2020. 5. 7.

13) WHO,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gclid=EAIaIQobChMI5bjEkpnO6QIVTaSWCh1pyQE8EAAYASAAEgL5uvD_BwE(accessed June 18, 2020)

□ **[경제에 미친 영향]** 한편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수출입, 생산성 및 산업 전반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2020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목표율이었던 6.8%의 약 50% 수준인 3.82%에 그침

○ 반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몇 년간 평균치인 2.66~2.8%에서 5.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물품의 수입은 1.9% 감소하였으며, 15만 3천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남

○ IMF는 베트남의 2020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6.5%에서 2.7%로 하향 조정함[14)]

□ **[재정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예산상 총수입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출 삭감 및 국제기구의 저이율 차관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의 노력 또한 이어나갈 계획을 밝힘

○ 경제성장률의 하락(5.3%), 석유가격의 하락(배럴당 30~35달러),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시행,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지연으로 인해 정부 수입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기승인된 예산안에서 경제회복과 성장, 채무 및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예산지출은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예방·통제·퇴치를 위한 지출과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총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이 초과달성된 2019년의 이월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회의비, 워크숍비, 국내외출장비 등의 비용을 20%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할 계획임

○ 한편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9년 이월분을 포함한 2020년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지불을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20/01/weodata/index.aspx,(accessed May 19, 2020).

## 나. 코로나19 대응책[15)]

□ **[경기부양책]** 베트남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율인하, 세금면제, 공제확대 등의 조세감면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각종 공공이용료를 인하하고 공공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2020년 법령41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5개월 연장하였으며, 이는 약 180조동 규모로 GDP의 2.4%에 해당함

○ 베트남 재무부는 7월부터 공제범위 확대와 개인소득세 인하를 시행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였음

- 개인공제: 매달 900만동에서 1,100만동으로 확대
- 부양가족공제: 인당 매달 360만동에서 440만동으로 확대

○ 한편 기획투자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공공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들로 구성된 결의안의 초안을 제출하였음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개인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개인소득세·토지이용료 납부마감기한을 12개월 연장
- 개인소득세 공제 조정
-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50% 인하
- 휘발유 환경세의 면세와 축소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0% 인하
- 베트남 국내생산차량에 한해 등록세 50% 인하
- 농촌지역 가구에 대한 농업토지세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
- 특정 부분 수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5개월까지 연장
- 수자원, 건설사업평가, 통행료, 항만, 항공 서비스, 도로 보수유지 등과 관련된 이용료 인하
- 주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 의료용장비에 대한 세금면제
- 2월 25일부터 법인등록세 인하(신규 자영업자의 등록세 1년간 면제 및 중소기업 등

15)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록세 첫 3년간 면제)

- 법인세 및 기업 감사·검사의 간소화

○ 이 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피해 기업과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10% 인하하는 안을 승인한 상태이며, 이는 대략 11조동 규모(GDP의 0.1%)로 추산됨

○ 또한 공공투자지출 가속화를 위해 직접조달을 허용하고, PPP 프로젝트를 공공투자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사회보장정책]** 베트남 정부는 2020년 결의안 42번을 통해 피해 기업과 가구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예정임

○ 기업과 법인은 연체이자 없이 최대 12개월간 연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는 총 9.5조동 규모로 GDP의 0.1%에 해당함

○ 해당 결의안은 4월부터 6월까지 인구의 약 10%를 대상으로 3.6조동(GDP 0.5%)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는 다음의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음

- 빈곤층에 인당 월 25만동 지급
- 사회보장제도 수혜자에게는 인당 월 50만동 추가 지급
- 일시적으로 휴무 상태이거나 무급휴가 중인 노동자에게 인당 월 180만동 지급
- 실업보험이 없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에 인당 월 100만동 지급
- 가구당 과세대상 월수입이 100만동 이하인 가구에 100만동 추가 지급

□ **[통화·금융 정책]** 베트남 당국은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 및 대출지원과 관련된 대응책을 시행함

○ 베트남 중앙은행은 3월 17일부터 정책금리를 0.5~1% 인하하였으며 단기예금금리를 0.25~0.3% 인하하는 한편, 우선순위 부문의 단기대출금리를 0.5% 인하하였음

○ 또한 현지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지준부리율)을 0.2% 인상하는 한편,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베트남 예금보험, 베트남 사회정책은행, 베트남 개발은행, 인민보증펀드 그리고 소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같은 비율로 인상하였음

○ 총 285조동(GDP 3.8%) 규모의 대출지원 관련 대응책을 1월 23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였음

- 4월 중순 기준으로, 총 60만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총 1,200조동의 대출 잔액에 대

해 대출 연장, 이자 인하,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식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들은 3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였음
-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이 임시휴업 중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무이자로 양허성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 16.2조동(GDP의 0.2%)에 해당함
-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은 또한 4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빈곤층의 대출금리를 15% 낮추는 한편, 기타 정책 대상자들의 대출금리 또한 10%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음

○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신용기관에 3월 31일부터 성과급, 급여, 기타운영비를 능동적으로 감축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음

□ **[환율정책]** 평가절하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 중앙은행은 3월 23일 과도한 환율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발표하였음

## 2. 인도네시아

### 가. 코로나19 현황 및 영향

□ **[코로나19 현황]**[16] 2020년 6월 18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0,400명[17]으로, 엄격한 사회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 및 해상 이동을 일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공장소에서의 행사와 이슬람 명절 동안의 대이동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킴

□ **[경제에 미친 영향]**[18]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조업, 서비스업, 교역 등

16)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17) WHO,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gclid=EAIaIQobChMI5bjEkpnO6QIVTaSWCh1pyQE8EAAYASAAEgL5uvD_BwE(accessed June 18, 2020).
18) Ministry of Finance of Indonesia, "Impact of Covid-19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인도네시아 발표자료, 2020. 5. 7.

산업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2월 동안 12,703편의 항공이 취소되는 등 항공산업의 피해는 2,070억루피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800명의 여행객이 감소하고 6천개 호텔의 객실점유율이 50% 하락하는 등 관광산업에서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45.3(3월)에서 27.5(4월)로 하락하였으며, 1사분기 동안 무역 수입량은 3.7% 감소하는 한편, 일시 해고 등으로 인해 약 200만명 이상이 실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4월 20일 기준)

○ IMF는 인도네시아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8%p 하락한 -0.3%로 수정함[19]

□ **[재정에 미친 영향]**[20]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예산 재배정 및 추가재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경기둔화, 원자재가격의 하락, 조세감면으로 인해 2020년 국가예산안상의 총수입은 2,233.2조루피아에서 1,760.9조루피아로 감소하는 반면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인해 총지출은 2,540.4조루피아에서 2,613.8조루피아로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7.2조루피아(GDP 1.76%)에서 853조루피아(GDP 5.0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을 재배치하고 재배정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팬데믹채권을 발행하여 그 수익을 코로나19 대응책 및 경기회복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6/24/WEOUpdateJune2020(accessed June 25, 2020).

20) Ministry of Finance of Indonesia, "Impact of Covid-19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인도네시아 발표자료, 2020. 5. 7. 및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코로나19 대응책

□ **[경기부양책]** 인도네시아는 3차례에 걸쳐 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부문 지원, ② 식량지원, 현금지급, 전기요금 보조 등을 통한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 ③ 비공식 부문 종사자를 포함한 실직자 지원 확대, ④ 관광 부문과 개인의 조세부담 완화 ⑤ 법인세 경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음[21)]

○ 제1차 부양책(8.5조루피아)과 제2차 부양책(22.5조루피아)은 GDP 0.2%에 해당되는 규모로, 소비 진작과 노동집약 부문 및 수출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20년 4월에 발표된 제3차 부양책은 405.1조루피아로 역대 경기부양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보건, 사회보장, 경제, 산업지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GDP의 3%를 초과하는 재정적자를 금지하였으나 제3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5.07%로 확대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22)]되는 2020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정부법령 1(Perppu No. 1 of 2020)을 발표하였음

□ **[재정정책]**[23)] 인도네시아는 2020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정부법령 1의 재정정책상 원칙*에 따라 보건, 사회보장, 경제, 산업지원 및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함

* 2020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정부법령1의 재정정책상 원칙[24)]
① 예산적자조정, ② 대체예산재원의 사용, ③ 예산의 재배정 및 조정, ④ 마을기금의 조정, ⑤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원조달, ⑥ 조세인센티브, ⑦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의 지속성을 위한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 시행

○ (보건 부문 정책) 의료장비 및 의료인 지원을 중심으로 75조루피아가 할당됨

---

21)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22)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2020, p. 22.

23) Ministry of Finance of Indonesia, "Impact of Covid-19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인도네시아 발표자료, 2020. 5. 7. 및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24) Ministry of Finance of Indonesia, "Impact of Covid-19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인도네시아 발표자료, 2020. 5. 7., p. 5.

- 테스트 키트 및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장비의 우선적 구비와 의료인프라, 의료시설 및 인력 지원을 제공함
- 의료 종사자에 6개월간 인센티브 제공함(전문의: 월 1,500만루피아, 일반의: 월 1천만루피아, 간호사: 월 750만루피아, 기타 보건종사자: 월 100만루피아 제공 및 의료인 사망 시 1인당 3억루피아를 지급)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를 보조함

○ (사회보장 부문 정책) 110조루피아를 할당하여 기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전력 및 주택 관련 비용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함

- 기존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인 가족희망프로그램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1천만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매달 실시하고 있음
- 기초식료품지원 프로그램의 수혜가구 수를 1,520만에서 2천만가구로 확대하고 매달 15만루피아에서 20만루피아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임
- 구직자 및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56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임
- 전기사용량이 450VA 이하인 240만명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900VA 이하를 사용하는 700만명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면제하였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함(17만5천개의 주택에 1.5조루피아 지원)
- 기초식품 및 생필품의 물류 및 시장 운영을 위해 25조루피아 규모의 예비기금을 조성하였음

○ (산업지원 부문 정책) 70.1조루피아를 할당하여 조세혜택과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함

- 연간 소득이 2억루피아 미만인 제조업 종사자에게 6개월간 소득세를 면제해줌
- 19개 제조업 부문에서 수입세 납부를 6개월간 연기해줌
- 19개 제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었음
- 2020~21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2022년은 20%로 인하함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사업체의 소액대출건 만기를 6개월간 연장해줌

○ (경제회복 부문 정책) 150조루피아를 할당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제도를 개

편하였음

- 중소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100억루피아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를 인하하고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줌

□ **[통화정책]**[25]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을 통해 2020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정부법령 1의 금융 부문 정책상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음

* 2020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정부법령 1의 통화정책상 원칙[26]
①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의 권한과 범위 확대, ② 장기국공채 매입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③ 리스크 방지 및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관 및 금융 서비스기관의 권한을 강화, ④ 금융문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 강화

○ 기준금리(BI 7-day Reverse Repo Rate)와 예금기관이자, 대출기관이자를 각 0.25%씩 인하하였음

○ 중앙은행이 국내비인도선물환시장(Domestic Non-Deliverable Forwards)과 현물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내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는 삼중개입을 강화함

○ 루피아화의 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20일부터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의 만기를 12개월까지 연장하고 일일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3월 19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비인도선물환시장 거래 시 루피아화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 루피아와 외화의 유동성 완화를 위하여 은행이 외화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외화스와프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

○ 이 밖에도 위생적인 화폐 공급 및 현금 외의 지급수단 장려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계획임

□ **[금융정책]**[27] 인도네시아는 2020년 3월 신 금융감독위원회법(OJK Regulation No 11/POJK.

25)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2020.
26) Ministry of Finance of Indonesia, "Impact of Covid-19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인도네시아 발표자료, 2020. 5. 7. p. 5.
27)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2020.

03/2020)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융자 및 자금조달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함(2021년 3월까지 적용)

○ 중소기업과 비공식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출 및 리스료 지불에 대하여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총 100억루피아 규모)

○ 은행 및 리스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 없이 유예가 가능하며,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비중소기업 부문에도 적용함

#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국가의 경제와 재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IMF의 재정전망 예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이 악화, 최근 전망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이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음

○ 봉쇄,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수요의 급감과 공급의 감축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가구,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됨

○ 무역과 출입국의 감소로 인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관광·교통업에서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역 및 교류 빈도가 매우 높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특히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재정 분야 대응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현황을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

□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s in Asia, PEMNA)에 속하는 14개 회원국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6월 1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약 22만명임

○ 2020년 현재 PEMNA 회원국은 총 14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그리고 베트남이 포함됨

□ **[경제 전망]** 코로나19로 인해 PEMNA 14개국의 2020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 전망치 대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4.9→-0.9%), 향후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IMF 최근 보고서의 수치를 반영하면 PEMNA 14개 회원국가 중 9개 국가에서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IMF, 2020. 6)

-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IMF 전망치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몽골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태국의 2020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코로나19 이전 3.0%로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7.7%로 예측되어 10.7%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PEMNA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인 영향이 큰 국가로 나타남. 필리핀은 9.8%p 하락(6.2%→-3.6%), 캄보디아는 8.4%p 하락(6.8%→-1.6%)해 그다음으로 영향이 큰 국가에 해당함

□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이로 인한 경기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경기 전망은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음

○ 국제기구의 경제성장 전망도 점차 부정적 영향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음

- IMF의 2020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코로나 이전 3.3%에서 2020년 4월 -3.0%로 수정한 후, 2020년 6월에는 -4.9%로 예측하고 있음

□ **[실업률]**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PEMNA 회원국들의 2020년 평균 실업률은 코로나 이전 전망치 4.4%에서 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피해 산업]** PEMNA 회원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은 관광업, 항공 및 교통업, 제조업, 도소매업, 농업이라고 응답함

○ 설문에 응답한 PEMNA 회원국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관광업에서의 피해가 큰 것으로 답변

□ **[재정건전성]** 국가 경제 둔화 및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도 증가(GDP 대비 -4.0→-7.9%)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으로(GDP 대비 46.8→54.5%) 예측됨

□ **[재정 대응]** PEMNA 14개 회원국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의 최소화와 피해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국가는 2020년 2월 3개국, 3월 6개국, 4월 9개국으로 증가

○ 10개국은 평균 454억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지출을 추가 배정함

□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대출제도 개편, 대출 상환 연기 및 장기저리대출 등이 많이 활용됨. 가계 지원을 위해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10개 국가에서 시행 중임

○ 식량(쌀)과 같은 기초적인 생필품을 지급하기도 하며, 전기·수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원방안 활용 및 사회안전망 확대

□ **[조세정책]** 14개 중 11개 회원국이 조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은 과세이연(tax deferment)이고 10개 국가에서 활용 중임. 조세면제(9개국)와 조세감면(9개국), 조세환급(5개국)도 활용되고 있음

□ **[재원 조달]**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이 실시되었거나 계획 중이며, 필요 재원은 자본지출 삭감, 정부차입, 국채발행, 국제원조 등으로 조달함

○ (원조) 재원조달 수단으로 국제원조를 활용하는 회원국은 12개국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PEMNA 회원국이 코로나19 관련 국제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개 국가가 국제원조를 받고 있음(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 **[시사점]** 코로나19 확산은 선진국보다 신흥경제국 및 저소득 국가에 더욱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짐. 보건의료 인프라가 낙후되어 확진자를 확인 및 격리하는 등의 방역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며, 저소득계층과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충격 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 큰 위기로 이어지게 됨

○ 신흥경제국 및 저소득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의료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원조를 활용하고 있음

○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가 큰 분야 및 계층에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비롯한 우선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임. 또한 한정된 자원을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분배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기적 정책수단과 장기적 정책수단의 조합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

○ 단기 정책은 피해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재화의 지원 위주로 실시

○ 장기 정책은 경기 회복과 부양을 위한 중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국채발행, 차입, 국제원조 등의 적합한 방안이 활용되어야 함

○ 재정수지의 악화와 국가채무의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음

□ 코로나19는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종식시키기 어려우며, 주변 인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출입국의 협조, 보건의료 지식과 자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봉쇄 및 격리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ICT 기술 협력, 효과적인 재정 대응방안의 공유와 경제협력 등도 모두 고려되어야 함

# 참고문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2020.

ADB, ADB COVID-19 Policy Database, https://covid19policy.adb.org/(accessed May 20, 2020).

IMF, DataMapper, Fiscal Monitor,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FM (accessed May 15, 2020).

_____, DataMapper, Gross Domestic Product(GDP),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1(accessed May 15, 2020).

_____, Fiscal Monitor-April 2020-Chapter 1: Policies to Support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0/04/06/fiscal-monitor-april-2020(accessed May 12, 2020).

_____, Fiscal Monitor: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October 201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19/09/12/fiscal-monitor-october-2019(accessed April 14, 2020).

_____,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olicy Tracker,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accessed May 12,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accessed April 14,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20/01/weodata/index.aspx(accessed May 19,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2020, https://home.kpmg/content/dam/kpmg/xx/pdf/2020/04/government-and-institution-measures-in-response-to-covid-19-asia-pacific-a-m.pdf(accessed April 14, 2020).

Ministry of Finance of Indonesia, “Impact of Covid-19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EMNA 예산분과 Webinar, 2020. 5. 7.

Ministry of Finance of Vietnam,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mpact of COVID-19 in Vietnam,” PEMNA 예산분과 Webinar, 2020. 5. 7.

PEMNA Secretariat, B-CoP Member Survey, PEMNA 예산분과 Webinar: Asia-Pacific Regions’ Fiscal Response to COVID-19 Crisis, 2020. 5. 7.

World Bank,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20: 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2019) situation reports,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accessed June 25, 2020).

_____, Coronavirus disease(COVID-19) Situation Report-149, 2020. 6. 17.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617-covid-19-sitrep-149.pdf?sfvrsn=3b3137b0_8(accessed June 18, 2020).

_____, Novel Coronavirus(2019-nCoV) Situation Report-1. 2020.1.21.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121-sitrep-1-2019-ncov.pdf?sfvrsn=20a99c10_4(accessed June 18, 2020).

_____,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gclid=EAIaIQobChMI5bjEkpnO6QIVTaSWCh1pyQE8EAAYASAAEgL5uvD_BwE(accessed June 18, 2020).

_____, World Health Data Platform: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accessed June 12, 2020).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재정정책**


발 행 2020년 6월

발 행 인 김유찬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⑦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8-89-8191-753-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